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현황도

인구 330만명 GRDP 204조원 기업 23만개 대학 34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주요사업

- 1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 2 충남·경기 연접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 3 당진·평택항 물류 환경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 4 충남·경기 해안지역 국제적 관광지 (K-골드코스트) 발전
- 5 수소 산업 공동협력으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
- 6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
- 7 서해안권 마린 거점 공동 육성, 해양레저산업 발전
- 8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 9 충남·경기 현안 사항과 중장기 발전 방향 공동연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충남-경기 ‘맞손’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최첨단 산업벨트 등 공동추진
‘1호 결재 사업’ 급물살 기대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해양레저·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4차산업 거점, 균형발전 실현”

충남 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아
산만 일대를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만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과 경기도가 양 도의 연접지역을 반도
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산업을 선도하
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상생 발전하
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9월 29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
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
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
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
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
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양 도는 천안-아산-평택 순환
철도 건설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순환철도는 103.7km 규모로, 당진 합덕~예산
신례원 12km를 신설하고, 경부선·장항선·서해선
등 기존 91.7km 노선을 활용한다.

천안과 아산, 평택 등 아산만 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평택·당진항은 물류 환
경 개선을 통해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한다.

충남과 경기 해안지역은 국제적 관광지(K-골
드코스트)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수소 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를 조성, 글로
벌 에너지 대전환에도 대비한다. 당진, 아산, 평
택 등에 수소 기업을 육성하고, 산단 내 수소발
전소를 만드는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 서

해안권 마린 거점 공동 육성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현안 및
중장기 발전 방향 공동연구 등을 약속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은 협의체 구
성과 기반시설 공동 활용, 육상 쓰레기 유입 차
단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동연구는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 연구
기관이 협력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는 내
용이다.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시도 경계를 넘어 아산
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신산업, 수소, 해양 레
저관광, 교통망 등을 연결하면 더 큰 시너지 효
과를 올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충남과 경기도가 미래 100년을 내
다보며,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지도를 재설계하
고,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
고 말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이번 협약 실천을 위한 실
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약과제 국가계획
반영 등 공동협력을 추진한다.

〈관련 2면〉

/김정원 jwkim87@korea.kr
/정책기획관 041-635-3146

베이밸리 (Bay Valley, 아산만 일대 광역 생활·경제권) 메가시티 건설사업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
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
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 명, 기
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조 원에 달
한다.

모바일 충남도정신문 운영

충남도정신문은 ‘카카오 뷰’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신문을 운영합니다. 카카
오톡 검색창에 ‘충남도
정신문’을 입력하고 채
널 추가하면 다양한 정
보와 이벤트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차산업 경제 거점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된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충남 북부, 경기 남부 아산만권
순환철도, 산업벨트 등 추진
국가균형발전 선도 공동 성장

충남도와 경기도가 상호 협력을 통해 양 도의 연접지역인 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개발한다. 행정 경계를 넘어 천안과 아산, 평택을 잇는 순환철도를 건설하는 등 9개 사업을 협력 추진한다.

최근 충남도와 경기도가 체결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충남도와 경기도는 천안, 아산, 평택을 오가는 순환철도를 건설·운행한다. 순환철도 총연장은 103.7km 규모로, 기존 구간 91.7km, 신설구간 12km이다. 경부선, 장항선, 서해선 등 기존노선을 활용하고, 당진 합덕~예산 신례원 12km를 신설한다.

기존 노선 중 평택~안중 단선 비전철 13.4km를 복선전철화한다. 충남도와 경기도를 잇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당진항 서부두 전경

연접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아산만권 동부에 최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해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지역으로 육성한다. 천안(종축장)과 아산(탕정), 평택(고덕) 등 아산만 지역에 국가산업단지(산단) 및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충남과 경기의 산·학·연을 연계해 미래산업을 키워낸다.

충남은 천안·아산·당진 등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신규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진·평택항 물류 환경개선

당진·평택항은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항만 규모는 당진항 30선석(송악, 고대, 서부두), 평택항 34선석(내항, 동부두) 등이다.

충남은 당진항 부두 확충 등 상업항 기능을 확대하고 항만친수시설과 수리조선단지 등을 조성한다.

해안지역 국제관광지 발전

안산 대부도부터 충남 서해까지 대한민국 대표 국제적 관광지(K-골드코스트)로 발전시킨다.

K-골드코스트는 충남 아산·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과 경기 안산·평택 일원에 서해안 국제적 관광지 육성 및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도는 서해안 관광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당진, 아산, 평택 등에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를 조성,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에도 대비한다. 수소 기업을 육성하고, 산단 내 수소발전소를 만드는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당진에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아산에 수소용품 제조기업을 육성한다.

이외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 서해안권 마린 거점 공동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현안 사항 및 중장기 발전 방향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미군기지(K-6) 이전에 따른 아산 둔포, 평택 평성 등 주변 지역 지원을 확대한다.

서해안권 마린 거점 공동 육성 및 해양레저 산업 발전에 협력한다. 마린나항 조성 및 요트·보트 연계 루트를 개발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공동 대응해 깨끗한 서해바다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충남·경기 현안 사항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동연구한다.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협력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정책기획관 041-635-3146



원산안면대교



충남도와 경기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도시락·물통폭탄 건네받고 홍구공원으로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12) 상해의거일 아침

드디어 4월 29일이 왔다. 아침 일찍 김구가 찾아왔다. 윤봉길은 김구와 함께 화통로 원창리 12호의 김해산 집으로 가서 태연자약(泰然自若)하게 아침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자 7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윤봉길은 시계를 풀러 김구에게 드리며 자기 시계는 1시간밖에 소용없다면 시계를 바꾸자고 하였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 밖에 더 소용없습니다.”

윤봉길은 김구로부터 도시락과 수



윤봉길의사가 김구로부터 받은 회중시계(보물 568호)

통형의 폭탄을 건네받고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 김구의 손에 쥐어 주었다. 김구는 자동차를 탄 윤봉길에게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라고

목메인 소리로 작별했다. 윤봉길은 차 안에서 김구를 향하여 머리를 숙였다. 자동차는 엔진소리를 울리면서 홍구공원을 향해 질주하였다. 오전 7시 50분경 홍구공원 입구에서 차를 내렸다. 윤봉길은 공원의 정문을 향했다. 중국인 문지기가 입장권을 내라고 하였다. 윤봉길은 입장권이 없었지만, 일본어로 ‘나는 일본인이다. 입장권 따위가 왜 필요한가’ 하고 그대로 들어갔다. 윤봉길은 사전 답사에서 이른 시간에는 중국인 수위가 경비한다는 것을 알았다. 입장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인으로 위장해야 했다.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양복과 스포링코트를 입었다. 거기에 일본 보자기로 쓴 도시락과 일본 수통을 메었으니 중국인 경비의 눈에는 틀림없이 일본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윤봉길은 공원에 들

어가 식단의 뒤편으로 자리 잡았다. 이틀 전에 보아 둔 장소였다. 윤봉길은 거사 전날에도 홍구공원 앞의 중국집 2층에 올라가 일본군의 예행 연습을 지켜봤다. 행사장의 중앙에 7.8척 높이의 식단이 보였다. 식단 위에 10여개의 귀빈용 의자가 있었고, 식단 앞에는 학생과 군인, 그 주위에 민간인 자리를 배치하였다. 식단 뒤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경비하는 헌병만을 드문드문 배치해 놓은 것을 보았다. 식단의 뒤쪽에 자리를 잡은 것은 경계가 비교적 허술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거사 시각도 식이 끝날 때로 잡았다. 그때쯤이면 경비원들의 긴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았다. 거사의 성공을 위한 치밀한 작전 계획이었다.

홍구공원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전장절과 상

해사변의 승리를 축하하는 전승축식을 겹쳤다. 공원의 정문은 화려한 색깔의 천으로 장식되었고, 일본 해군기와 육군기를 게양하였다. 정문 옆에는 홍색 천에 ‘경축만세 만만세’라고 써 내걸었다. 행사장에 들어오는 일본인들은 손마다 일장기를 들고 공원으로 몰려들었다. 상해거주 일본인 1만 명이 입장했다. 거기에 일본군 제9사단과 해병대 병력 1만 2천명, 그 외에 각국의 사절과 각계 초청자를 합하여 3만여 명의 군중이 법석을 이루었다.



김 상 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가을 하늘에 블랙이글스... '군문화엑스포' 화려한 막 올린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가이드

10월 7~23일 계룡대서 개최
군 소중함과 가치 공유 기회

세계 군문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이 될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 동안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열린다. 군문화엑스포는 10월 7일 오전 8시 30분 개장식, 같은 날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행사장 메인 무대에서 펼치는 개막식에서는 해외 군악대 공연, 군악대 합동공연, 초청가수 공연, 멀티미디어 쇼 등이 대장정의 서막을 장식하고,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도 진행한다.

군악대, 거리공연 '풍성'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계룡세계 군악·의장 콘서트(10월 8~22일) ▲충남 시·군의 날(〃) ▲로드 퍼레이드(〃) ▲슬기로운 군대생활(10월 17일) ▲글로벌 케이-팝 경연대회(〃 18일) ▲피스 뮤직 페스티벌(〃 19일) ▲밀리터리 시네마 토코쇼(〃 20일) ▲밀리터리 댄스 페스티벌(〃 21일) ▲밀리터리 락 페스티벌(〃 22일) ▲육군의 날(〃 13~15일) ▲해군·해병대의 날(〃 9일) ▲공군의 날(〃 10일) ▲한미



어린이가 군장비 체험을 하고 있다.



거리퍼레이드

동맹의 날(〃 8일) ▲한국전쟁과 대한민국 개요 70년사(〃 11일) ▲국악 관현악과 함께하는 군 음악의 향연(〃 12일) ▲군 문화 뮤지컬 갈라쇼(〃 16일) 등을 메인무대 등에서 펼친다.

군 장비 탑승, 서바이벌사격

군문화엑스포 기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열려 눈길을 끈다. 고공강하 시범, 전투 및 기동 시범, 군 장비 탑승, 무기장비 야외전시, 병영훈련, 과학화 장비 사격, 서바이벌 사격, 헬기 탑승, 가상현실 기반 사격, 드론 경연대회 및 체험, 로봇 체험, 석고 인형·달고나 만들기 등이 대표적이다. 부대행사로 계룡대 영내 투어, 계룡산 안보 등반, 계룡 스탬프 투어 등이 진행된다. 10월 13일 오후 2시에는 계룡문화에

술의전당에서 계룡세계평화포럼이 열린다.

상설무대는 케이-밀리터리 경연대회(10월 15~16일)와 케이-밀리터리 코스프레 공모전(〃 16일), 아마추어 피스뮤직 콘테스트(〃 17일), 더 솔져스 피트니스 챔피언십(〃 9~10일), 어린이 군가 부르기 경연대회(〃 11일), 군복 패션쇼(〃 18일) 등 24개 프로그램이 가을 하늘을 수놓는다.

국방체험관 등 전시관 운영

전시관은 세계 평화관과 한반도 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 세계 군문화 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 융합관, 지역 산업관 등 7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세계 평화관에서는 세계 전쟁의 역사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반도희망관에서는 우리나라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관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의 현주소를 살필 수 있으며, 세계 군문화 생활관에서는 국군을 비롯한 세계 군의 의식주를 엿볼 수 있다.

국방 체험관에서는 드론봇 전투 체계 등 우리나라 국방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고, 4차산업 융합관에서는 국방 관련 첨단 기술 및 제품을 접할 수 있다. 지역 산업관에서는 도내 관광과 특산물, 지역 기업 우수 제품 등을 만나게 된다.

행사 입장권은 성인 9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현장 대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매하면 성인 입장권에 한해 1000원을 할인받고, 2000원 상당의 계룡사랑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3



201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막식 모습.

군문화엑스포 이모저모

헬기 탑승 체험자 960명 모집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는 10월에 개최되는 군문화엑스포기간 관람객 대상 육군항공 헬기 탑승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헬기 탑승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행사장 인근에 있는 계룡대 헬기장에서 시누크(CH-47) 2기를 활용하여 행사기간 1일 2회 120명씩, 8일간 진행을 통해 연인원 960명이 체험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1차 탑승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차 탑승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각 체험 신청자를 모집한다.

단 만 12세 이하(2010~2022년 출생자), 고혈압,

고소공포증, 노약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65

성공 개최에 시·군 뭉쳤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이 다음 달 막을 올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9월 28일 계룡 신도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시·군의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도 협조사항 전달, 시·군 현안 및 홍보 사항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시·군 현안 및 홍보 사항으로는 ▲천안 빵빵데이 대축제 ▲공주 백제문화제 ▲아산 외암민속마을 짬뽕문화제 ▲서산 해미읍성축제 ▲금산인삼축제 개최 등을 소개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군문화엑스포 상시 방역체계 가동

충남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위해 행사 기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방역 분야 대책으로 행사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유증상자는 응급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시장 등 실내 시설은 전문 소독업체가 매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관람객들이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인원을 배치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계룡시 관내 진단-검사-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9개소를 운영한다.

먹는 치료제 지정 약국은 6개소를 운영하며,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한다.

응급 분야에서는 행사장 내 현장 응급진료소를 운영하고, 구급차를 비상 대기시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토록 한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61



2022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충청남도체육대회가 3년 만에 보령시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충남도는 9월 29일 '2022 충청남도체육대회(충남체전)'가 보령종합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대회 일정에 돌입했다. 충남체전은 지난 2016년 생활체육회와 도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통합체육대회로 도체육회가 주최하고, 보령시체육회와 도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며, 도와 도교육청, 보령시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행복도시 만세보령! 함께 뛰는 힘센충남!'이라는 구호 아래 시군 선수단 95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 종목은 축구, 배구, 육상, 배드민턴, 수영, 탁구,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패러글라이딩, 역도, 골프(시범종목) 등 총 30개 종목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54

지역 혁신 이끌 선도기업 4개사 선정

컨설팅, 연구개발비 등 다각도 지원

충남도는 9월 29일 도청에서 '2022년 충남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정서 수여 및 업무협약식'을 열고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혁신 선도기업 4개사를 선정했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내 선도(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충남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한 기업은 발맥스기술, 엘디터, 엘케이켄, 엠프로텍 등 4곳이다.

이들 기업은 평균 매출액 234억 원, 평균 근로자 53명, 평균 수출액 36억 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CAGR) 31% 등 잠재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협업 성과를 고려해 최대 3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과제의 사전 기획을 위한 컨설팅,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 매칭,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년부터 3년간 기

업별 최대 10억 원까지 연구개발비도 지원한다.

이날 도와 충남테크노파크, 발맥스기술 등 13개 기관·기업은 충남지역 혁신 선도기업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실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 ▲주력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및 사업화를 위한 실증연구 ▲기타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 협력 등이다.

/산업육성과 041-635-3934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선정

시상식 10월 12일 개최

충남도는 최근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윤철 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장 등 5명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은 1995년부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모든 도민에게 귀감이 되는 이에게 수여하는 충남 최고 영예

의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김윤철 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장, 성기조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유병권 청곡장학회 회장, 전진석 중부발전 과장, 최승천 충남발전협의회 홍성군지회장 등이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12일 ‘충남 도민의 날’ 행사 때 갖는다. /자치행정과 041-635-3594



해수욕장 등 야외 공간에 주소 부여한다

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 수립

충남도가 현행 57만 개의 주소정보(건물주소, 사물주소 등)를 114만 개로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도로명주소법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입체도로(지하·고가도로), 산책로, 해수욕장과 같은 야외 공간에 주소가 부여돼 물류와 배

달 등 생활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농로, 임로, 방과제, 비닐하우스 등 농어촌 지역의 도로명주소는 2배 수준



주소정보 활용

까지 부여하고, 주소가 미부여된 사업장과 세입자 등에도 개별주소를 부여한다.

도는 상세주소(동·층·호)도 계단, 복도, 문 앞까지 확대해 자율주행로봇이 택배를 배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관리과 041-635-2864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장비대여

카메라·3D프린터 등 선착순 모집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창업마루 나비 미디어 및 메이커 클래스(장비교육)와 연계해 장비대여서비스를 진행한다.

나비 스튜디오 및 팝랩은 스타트

업 및 예비창업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나비 스튜디오 및 팝랩 장비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 장비는 DSLR카메라, LED 조명, 콘텐서 마이크, 크로마키 부

스, 3D프린터, 레이저커터, 플로터 등이다.

장비대여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ori@ccei.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충남센터 창업기반실(041-536-7834)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34

도내 유망기업 지원 확대

창조경제협의체 업무협약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창조경제협의체)는 9월 22일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엑셀러레이터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

고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액셀러레이터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액셀러레이터로 불리는 창업기획자의 기업보육, 투자 분야에

대한 기초체질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 지역거점 공고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협력 강화 ▲창업기획자 기초 체질 향상을 위한 협력 등 상호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041-536-7825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함께하는

맛풍당당

제철농산물 도장깨기

2022년 4월 ~ 2022년 11월

신선한 제철 상품을 즐기다보면 경품이~

농사랑에서 제철 농산물을 구매하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보세요!

행사 참여는 농사랑 웹사이트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http://www.nongsarang.co.kr>

공주오이 부여수박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K-유교 세계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인문학 강연 11월까지 운영
전통유교, 현대유교 등 다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인문학 강연 ‘K-유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기호유학의 본고장 논산에 자리잡은 진흥원은 한국유교문화와 충청국학에 대한 연구 및 국학자료 보존활동 뿐 아니라, 도서관과 박물관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과 한옥연수원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과 운영 등을 통해 유교문화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전경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유교문화 거점 기관이다.

‘K-유교 아카데미’는 현대인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조화롭게 잇고, 나아가 세

상을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K-유교, 전통과 현대를 잇다’라는 대주제와 과거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통유교에서부터 국제적인 시각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현대유교까지 동·서양을 포괄하는 총 8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강의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유교문화의 이해(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베르너 사세 교수), 현대사회에서 바라보는 유교(공주대학교 이치익 교수) 등이 매주 1회 진행된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041-981-9922

중부발전 생태부지에 스마트팜 조성

온배수 활용해 식물재배도

한국중부발전 생태부지에 예코 스마트팜이 조성된다.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와 주교고송영농조합법인, 코리아힐은 9월 27일 지역 상생형 예코 스마트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코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일원 한국중부발전 생태공원 부지에 약 1000평 규모의 트롤리 컨베이어를 활용한 식물재배 공장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우스형 스마트팜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으로 구성하고 체험학습실, 작업준비실 및 직판장 등도 만든다.

스마트팜은 작업 동선 및 노동 강도 감소, 작업 편리성 증대, 기존 시설하우스 대비 6~18배 재배면적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부지와 온배수 열 공급 설비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환원해 지역 상생을 실현할 방침이다.

/식량원예과 041-635-4050

/에너지과 041-635-3458

도정만화

신명환



가축전염병 차단 특별방역 돌입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충남도가 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시·군을 비롯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철새도래지 18개소 52지점 축산차량 전면통제 ▲전담관 414명 동원 축산농가 지속

예찰 ▲전 소독차량을 활용한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 ▲고위험 축종 사육 제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및 실태 점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등이다.

이와 함께 도내 가금류 및 우제류 가축의 질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AI·ASF·FMD 항원 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한다.

강도 높은 방역 대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09

충남사회혁신센터 수탁기관 모집
내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운영

충남도는 내년부터 충남사회혁신센터 운영·관리를 새롭게 맡게 될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충남사회혁신센터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실험 등 주민 주도 사회 혁신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

관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혁신 활동에 관한 우수 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펴게 된다.

응모는 사회 혁신 활동 및 사회 혁신 공간 기획·운영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중 공고일 전일(9월 26일) 기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응모 기간은 10월 12~14일이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73

단신기사

결식 아동 급식 지원망 ‘쫄쫄’

충남도는 9월 29일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과 ‘충청남도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도내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700명을 선정하고, 시·군별 급식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도가 발굴한 아동에 대한 급식 공급 사업비와 기부 물품을 마련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내년 1년간이다.

행복도시락은 밀반찬과 비타민 등 꾸러미를 제조해 지원 대상 아동에게 제공하고, 식단과 위생 등을 관리한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7

구제역 백신 접종 동참 당부 접종 후 항체 양성률 검사

충남도는 구제역 방어력 확보를 위해 11월 11일까지 농가 사육 소·염소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

도내 1만 5000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58만 3000두가 대상이다.

접종은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와 300두 미만 염소 사육 농가는 공수의 등이 직접 찾아 지원하고, 이 외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일제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살피기 위해 접종 4주 후에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한다.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법정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를 밑도는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및 재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2

철새 도래 앞두고 시 차단 총력 가금농가 시 차단 방역 교육 실시

충남도는 9월 27일 도내 가금농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 동향, 방역 대책, 농장 차단 방역 방안 등이다.

이날 가금 전문 수의사를 초청해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방역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거점 세척 소독 시설 확대 운영, 취약 지역 통제 초소 설치, 철새 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 통제, 농장별 전담 공무원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5

충남도서관 고객만족·수어 교육 도서관 이용객 서비스 품질 향상

충남도서관은 9월 23일 전 직원 대상 고객만족 및 수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도서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농아인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마련했다.

고객만족 교육은 정태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도서관 이용객 응대를 주제로 가졌다.

수어 교육은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소속 김효정 강사를 초청, 도서관 이용 시 자주 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수어로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충남도서관 041-635-8066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충청남도

2023.1.1 시행

내 고향
충남을 살리는
이웃 특별한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자

충청남도

충청남도민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답례품 생산·제조
주민복지 사업

주민 복지 사업 시행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내포신도시에 새동지

기존 공주시 흥예공원으로 이전
숲 체험, 독서, 공연, 인성교육 등

충남 내포신도시내 어린이들이 자연에서 체험 학습을 하며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생태인성교육 거점 시설이 문을 열었다.
도에 따르면 충남 내포신도시 흥예공원 용봉산·수암산 자락에 위치한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내포자연놀이뜰이 개원식이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내포자연놀이뜰은 공주에 위치

한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을 이전한 것으로, 흥예공원 내 대지 1만 3223㎡에 건축연면적 2622㎡ 규모로 도비 25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시설은 자연놀이동, 그림책도서관, 인성동, 요리교실, 야외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숲 치료 및 체험, 탄소중립 체험, 가족 체험 및 부모 교육, 찾아가는 인성교육, 교육부 인증 인성 프로그램, 보육 교직원 교육, 공연 프로그램 등이다.
이 중 공연은 마술과 인형극 등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내포자연놀이뜰 개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올해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토요일 ‘김영만과 코팍지들 종이접기’를 진행한다.
이용은 기관 또는 개인별로 가능하며,

회원 가입 후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0

충남도, ‘자살률 1위 불명예’ 벗었다

자살예방전담팀 신설·시책 추진
지난해 충남도 내 자살자가 50명 이상 줄어들며 ‘자살률 1위’ 불명예를 5년 만에 벗었다.
도가 통계청 발표 ‘2021 사망 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살자 수는 6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32명에 비해 53명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10만 명 당 자살자 수(자

살률)는 2020년 34.7명에서 지난해 32.2명으로 2.5명 감소했다.
자살률 순위도 1위에서 2위로 ‘탈꼴찌’에 성공했다.
도는 자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팀을 설치하고, 도와 시·군 전 부서, 유관기관과 협업 과제를 발굴·추진해왔다.
또 노인멘토링, 농약 안전 보관함·가스 보관함 설치 등 위해 요인 차단, 충남형 마음 치유 힐링 캠프 등의 사

업을 폈다.
앞으로 자살 빈발 지역 및 수단 관리 등 자살 예방 기반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상담전화(1588-0199) 운영·관리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우울증 자가검진 및 서비스 연계 등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3

연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여부 점검
충남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도내 18만 필지 3만ha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이후 취득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 지분으

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또 농막이나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 이용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드러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농업정책과 041-635-2514

붕어·동자개 등 98만 마리 방류

수산자원 회복·어업인 소득 증대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는 도내 3개 시·군 내수면 5곳에 토산어종 우량 종자 98만 마리를 방류했다.(사진)
이번 토산어종 방류 지역은 아산호

와 논산 탐정호, 논산천, 청양 지천·여천이며, 품종별 방류량은 붕어 32만 마리, 동자개 21만 마리, 다슬기 45만 패 등이다.
이들 종자는 도 민물고기센터에서 친어 관리 및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해 관리해 온 우량 종자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787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190억 투입

정부 공모 선정·도심 대기질 개선
충남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내년도 시행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10개소 선정돼 천안 등 7개

시군에 19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기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일정 조건의 도심 내 숲 조성이 가능하다.

선정지는 ▲천안 청당동 유희지 ▲아산 곡교교차로 ▲아산 신남교차로 ▲아산 송촌교차로 ▲보령 장항선 폐선 구간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논산 성동산업단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금산 한국타이어 공장 ▲금산 대전통영고속도로 등 10개소다.
/산림자원과 041-635-2574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책 모색

제2차 다문화정책자문회의 개최
위원장에 사사끼사쓰끼위원 선출



처음이다.
정책 제안 설명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멘티 사업 운영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도정 반영 방안을 모색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다문화정책자문회의는 다양한 출신 국가의 외국인 주민을 공개 모집해 15명으로 구성한 도 자문기구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7

충남도는 9월 22일 제2차 다문화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 정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선출, 위원별 정책 제안 설명, 토론 및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위원장은 청양군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사사끼사쓰끼(사진) 위원이 선출됐다.
도 자문회의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이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는 이번이

식민주의 예술을 벗어나 민족주의 미술로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 삶과 예술

1945년 해방된 한국화단에도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일제가 강요한 화풍이었던 향토주의 굴레를 벗어나서 전통적 서화의 정신을 되찾으려는 움직임, 한국적 고유성과 민족성이 담긴 예술 운동, 국제화와 동서융합의 신미술 운동,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앵포르멜 경향에 젊은 예술가들이 도취되는 움직임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몸과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이 시기 이응노 화백 또한 그림그리는



장터여인,한지에 수묵담채,46x52cm,1940년대후반

일에 전념할 수 없었고, 매일매일을 술기운에 의지해 살아야했다. 이것은 세계양자대전을 겪은 전세계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절망 속에 빠져 허무주의로 깊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영차영차,한지에 수묵담채,42.5x65.5cm,1950년대

동시대적인 필연적 과정이었다. 하물며 외아들 문세가 전쟁통에 납북되었으니 생이별 당한 아비의 큰 슬픔을 어찌 가눌 수 있었을까.
다행히 이응노는 슬픔의 구렁텅이

에서 빠져나와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리고 전쟁의 참상과 국가재건을 위한 노동자들의 모습, 시장풍경 등 이상적 세계가 아닌 우리의 현실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려내

었다. 그리고 사생과 소묘, 필묵을 결합한 추상형식을 추구하며 한국화단의 획일화와 해외미술 경도로 치닫는 미술계를 질타하였고, 더 넓은 유럽현대미술의 경향에 눈을 뜨게 된다.
/황찬연 이응노의집 학예연구사

▶ 작품설명

원편은 오랜만에 만난 아나네들이 시장 한곳에 모여 정담을 나누는 정감어린 장면을 전통 풍속화 기법으로 그려내었다.
오른편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을 위해 노동자들이 등짐을 지고 나르는 모습을 몰골법으로 간략한 필치와 옅은 먹색에 담았다. 간결한 필치이면서도 인물의 힘찬 기운이 가득했다.



〈사진 왼쪽〉제67회백제문화제 폐막식 모습. 〈사진 오른쪽〉공주무령왕 탄생이야기 공연을 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화려한 개막...백제로 시간여행 떠난다

10월 1~10일 공주·부여서 개최
등불향연, 체험, 공연 등 다채

‘제68회 백제문화제’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충남 공주시 신관공원과 공산성, 부여군 구드래공원과 관북리 일

원에서 열린다.

이번 백제문화제는 ‘한류원조, 백제의 빛과 향’을 주제로 백제 문화가 1500년 전 동아시아와 문화교류를 주도한 ‘한류원조’였음을 재현한다.

백제문화제 고대 동아시아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의 전통성에 근거해 백제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에서 열려 의미가 높다.

백제문화제 개막식은 부여에서, 폐막식은 공주에서 열린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23 대백제전’을 앞두고 ‘프리(pre) 대백제전’ 형식으로 백제의 역사와 철학을 담은

44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무령왕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웅진판타시아 무령대왕’은 금강과 공산성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또 웅진성 퍼레이드와 웅진백제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챙기면 좋다.

세계유산 공산성과 미르섬 일원에서는 웅진 천도를 기념하는 황포돛배와 유등행사가 펼쳐지고, 가을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진행된다.

〈관련 9면〉
/김정원 jwkim87@korea.kr

백제문화제에서 고대 삼국권역 지자체 문화교류한다

신라고취대, 송파산대놀이 초청공연

〈재〉백제문화제재단은 제68회 백제문화제기간 고대 백제와 고구려·신라 삼국권역 지자체간 문화교류를 위해 초청공연을 한다.

초청공연은 백제와 함께 고대 삼국을 이루었던 신라의 경주지역 대표적인 국악 퍼포먼스 ‘신라고취대’와 한성백제시대의 도읍지인 송파구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가면극 ‘송파산대놀이’이다.

고취대(鼓吹隊)는 두드리는 타악기와 부는 관악기로 구성된 악대를 뜻하며 현대의 군악대라 할 수 있다.

1350여 년 전 신라의 고취대는 국가적인 길흉사, 사신 영접 등 의식행사와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선두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연주



송파산대놀이

단이다.

송파산대놀이는 약 250여 년 전부터 송파지역에서 전승되던 탈놀이로, 놀이꾼들이 탈을 쓰고 재담, 춤, 노래, 연기를 하며 벌이는 연극적인 놀이로 1973년 중요무형문화제 제49호로 지정

되어 현재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전승되는 탈놀이이다.

제68회 백제문화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류원조, 백제의 빛과 향’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재〉백제문화제재단 041-635-6991

백제문화제서 체험 즐기세요

부여·공주 역사문화체험관 운영

〈재〉백제문화제재단은 ‘한류원조, 백제의 빛과 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68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부여(사비백제 역사체험관), 공주(웅진백

제 문화체험관) 각각의 테마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백제 역사문화체험관을 상설 운영한다.

사비백제 역사체험관은 사랑나무 포토존을 시작으로, 백제의 미로, 계산공

주 스토리북, 백제 위프 타임존(짚라인), 백제의 라이트, 백제 실감 영상관 등을 운영한다.

웅진백제 문화체험관은 백제문화제 히스토리존, 백제의 예술·전투·무역존 및 실감 미디어 존 등을 운영해 백제 문화 전반과 관련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백제문화제재단 041-635-6991

백제역사유적지구 전시회 개최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서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11월 18일까지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아스타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 한국의 유산에서 세계유산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400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상징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삶의 공간, 도성 ▲신앙의 공간, 사찰 ▲사후 공간, 왕릉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장 내에서는 백제시대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의복 체험과 백제의

사계절을 표현한 일러스트 포토존, 연꽃 모양 연등 만들기, 백제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요리체험 등 행사가 진행된다.

전시회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 증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 042-488-9722

빨랫돌로 사용하다 국보로 지정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천안 출토 보협인석탑

현재 천안시에 위치한 국보는 1점으로 서북구 성환읍에 위치한 ‘봉선흥경사 갈기비’이다. 하지만 천안에서 제작되어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총 3점(봉선흥경사 갈기비, 보협인석탑, 천흥사 동종)으로, 모두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 서울 동국대 박물관에서 소장중인 보협인석탑(1982년 12월 국보지정)이다.

보협인석탑이란 이름은 『보협인다라니경』을 탑 안에 안치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며, 탑신에는 연꽃에 앉은 불상, 석가의 전생이야기를 담은 본생도(本生圖) 등이 그려져 있다. 현재 동국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보협인석탑은 탑신 4석, 상륜 1석만 남아있다. 본래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석탑과 형식이 달라 원형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보협인탑을 처음 세운 것은 중국 오월국(吳越國, 907~978)의 마지막 왕인 충의왕 전홍숙으로, 그는 평소 흠모하던 인도 아소카왕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8만 4천기의 탑에 나누어 봉안했다는 고사를 따라, 금과 철, 동, 돌 등 다양한 재료로 소형 탑 8만 4천기를 만들고 그 속에 일일이 『보협인다라니경』을 안치했다. 천안에서 발견된 보협인석탑은 이 보협인탑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추



보협인석탑

정되는데, 국내에서 이런 형태의 탑은 천안 보협인석탑이 유일하다.

보협인석탑의 행방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40년대 천안시 북면 대평리 탑골 계곡의 한 절터에서였다. 당시 석탑을 구성하는 돌들은 절터 주변에 거주하는 이 모씨가 수습하였고 빨랫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1967~1968년 사이 알 수 없는 경로로 동국대학교에 기증됐다. 올해 4월 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국외문화재 실태조사단(단장 이공휘)은 보협인석탑의 입수 경위에 대해 동국대 측에 문의하였으나 “유물의 안전한 보존 및 복원, 연구를 위해 본교 박물관에 기증됐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들었다.

실태조사단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보급 유물인 보협인석탑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지만, 반환까지는 현 소장처, 각 지자체, 정부기관 간 입장차이 등 조율해야할 부분이 많아 상세한 반출경위의 파악과 함께 관련 기관 간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런 전문가의 영역 외에 일반도민들이 유물의 가치와 더불어 천안지역에서 출토된 국보급 유물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박진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유산교류협력부 선임연구원



새로운 시작, 꿈꾸는 곳에 너를 채워봐! 개교 이래 991명 공직 진출!

입시문의  **충남도립대학교 입시 Q&A**  **카카오톡 채널검색**

수시일정 ▶ 수시1차 : 2022. 09. 13.(화) ~ 10.06.(목)
▶ 수시2차 : 2022. 11. 07.(월) ~ 11.21.(월)



원서접수  진학 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기네스북 올랐던 ‘웅진성퍼레이드’ 또 한 번의 진화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10월 9일 실시
대형 트레일러 활용한 무빙스테이지 도입
백제의 역사·문화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재현

[공주]지난 2010년 세계대백제전 당시 가장 긴
탈 퍼레이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던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웅진성퍼레이드’가 새롭게 재
탄생된다.

9월 28일 공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지역민의
정서가 깃든 독창적인 화합 프로그램으로 성장
한 웅진성퍼레이드가 올해 전면 개편해 지역에
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주도형 퍼레이드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웅진성퍼레이드’는 그동안 16개 읍·면·동에서
자체 기획하고 연출해 왔으나 2023 대백제전을
앞두고 보다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거듭나기 위

해 연출 방식에 큰 변화를 줬다.
대형 트레일러 11대를 활용한 움직이는 무대
‘무빙스테이지’를 도입해 중동초등학교에서 산
성시장, 연문광장까지 약 1km 구간을 행진하며
축제의 흥을 한껏 돋을 예정이다.

‘류(流) - 백제문화제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갈 공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산성 전투, 진묘
수들의 행진, 해상왕국 백제교류 등 백제의 역사
와 문화 속 장면들을 연극과 무용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재현한다.

무빙스테이지에는 지역 예술단체들과 예술인,
8개 읍·면·동 주민 등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

시는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구간에는 총 3천
석의 관람석 의자를 배치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
이다.

백제문화제의 진수를 함축적으로 볼 수 있는
웅진성퍼레이드는 오는 10월 9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웅진성퍼레이드 모습.

최원철 시장은 “웅진성퍼레이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평창문화올림픽 등 대규모 행
사를 완성한 김태욱 감독을 총 감독으로 선임했

다”며, “백제문화가 한류 원조였던 것처럼 퍼레
이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시 제공

굿뜨래 왕대추 본격 ‘출하’

이달 중순 농협서 공동선별 거쳐...
대형마트 쇼핑몰, 도매시장에 유통

[부여]충남 부여 대표 작목인 왕대추가 수확기
를 맞아 본격 출하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농협 공동선별을 거친 부여 왕
대추는 국내 대형마트와 쇼핑몰, 도매시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소비자
들을 만나게 된다.

현재 부여군에선 대추연구회를 비롯해 농가 600
여 곳이 170ha 규모로 왕대추를 재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재배 농가와 재배면적이 지
속해서 확대되고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국내 최
대 왕대추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군 농
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왕대추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왕대추는 최근 부여군 핵심 소득작목으로 급
부상하면서 지난해에는 새로운 부여 10품 목록
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일반 대추보
다 2배 정도 크고, 당도도 28브릭스 정도로 높아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껍질 먹는 번거로움



부여 농협 직원들이 갓 수확한 왕대추를 선별하고 있다.

이 없어 먹기 좋다는 반응이다.
부여군에선 왕대추가 시설하우스를 통해 재배
된다. 덕분에 병해충 발생이 적고 온도 유지와
물관리 하기에 편리하다. 부여 왕대추가 깨끗
한 품질로 명성을 얻게 된 비결이다.

박정현 군수는 “왕대추 전국 생산량 1위를 점
유하고 있는 주산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과 현
장기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고 했다.
/부여군 제공

‘규방의 식물들’ 특별기획전

온양민속박물관에서 3년째 진행
유물에 새겨진 ‘식물 문양’ 초점

[아산](재)구정문화재단 온양민속박물관(관장 김
은경)이 충남도와 아산시의 후원으로 다음 달 10
일까지 ‘규방의 식물들’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3년째 진행
중인 ‘공예 시리즈’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됐던
‘동물과 문양’ 특별전에 이어 유물에 새겨진
‘식물 문양’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옛 규방 여인들은 손바느질로 옷과 물건을 만
들고, 문양을 새기는 수련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유를 수용하며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

때 문양의 주인공은
대부분 식물과 꽃이
었다. 대표적으로 바
늘을 넣어 보관하는
바늘집에는 꽃과 나
비, 연화문 등이 다
양한 미적 효과를 통
해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

특별전을 통해 조
선 시대 여인들이 규
방에서 사용한 물건과 그 유물 속 식물 문양을
조성연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사진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아산시 제공



규방의 식물들 포스터

갯벌서 해루질하던 70대 남성 구조

[서천]충남 서천소방서는 9월 28일 오전 1시 50
분경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인근 갯벌서 해루질
하던 70대 남성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신고는 이 남성과 함께 해루질을 나간 동우회
원들이 복귀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119에 신
고했다.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천소방서는 소방인력
15명 장비 10대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 결과
다사항과 쌍도 사이 해상 약 1.5km 지점에서
부표를 잡고 표류해 있던 남성을 발견, 안전하
게 구조했다.

발견 당시 남성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이
송 없이 귀가 조치했다고 소방서는 밝혔다.
/서천시 제공

지역단신기사

광덕주민들의 숙원, ‘문화센터 개관’

[천안]천안시 광덕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었던 ‘광덕면 문화센터’가 9월 27일 개관했다.
남부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광덕면
문화센터는 광덕면 신흥리2길 39번지에 2층 신
축 건물로 지어졌다.

1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샤워실, 문화교실이
들어서고, 2층에는 대회의실, 문화교실 등을
갖췄다.

그동안 광덕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 건물이 없이 복지회관 3층을 리모
텔링해 협소하고 낙후된 공간에서 한정된 프
로그램만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
하지 못해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가 꾸준
히 제기됐다.

천안시는 지난 2018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작년 7월 착공에 들어가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을 들여 지난
7월 문화센터를 준공했다.

광덕면 문화센터는 주민 화합과 다목적 문
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돼 광덕주민의 문화복지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
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 제공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과일 무상 공급

[서산]충남 서산시가 10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대상으로 친환경 제철 과일 간식을
공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시
범사업은 영양가 있는 제철 과일 공급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2400만원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 15개
소 456명 아동들에게 1일 1회 섭취 기준량에
따라 150g의 과일을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TO)에서 11~18세 아동의 적
정과일 섭취량을 1회 100~150g으로 권고한 것
에 따른 것이다.

공급 품목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
은 제철 과일과 과채류이며 공급업체가 지역
아동센터로 5주간 직접 배송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산
친환경 과일만을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한 먹
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산시 제공

가축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

[청양]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는 고
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가축 유
용 미생물(생균제) 공급시간을 확대한다고 밝
혔다.

공급시간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가축 유용 미생물(생균제) 공급량은 농가당
60ℓ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가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유산
균, 효모, 바실러스 등 유용 미생물은 가축 사
료에 섞어 먹이면 되고 장내 이상발효, 설사,
소화불량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활용 방법은 곤포 사일리지일 경우 500kg당
생균제 400ml와 물 4ℓ, 황설탕 1kg을 섞으면
된다.

또 일반 사일리지는 유산균 1ℓ와 물 100
ℓ, 황설탕 2kg에 조사료 5t을 섞어 사용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 유용 미생물
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에 큰 도움을 준
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 제공

금산관광 스타트업, 맞춤 컨설팅 지원

[금산]충남 금산군은 지역관광 추진조직
(DMO)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산관광 스타
트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관광사업을 목적으
로 한 신생 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에 관심 있는
그룹 및 개인 등 5팀을 선정해 관광 콘텐츠 사
업계획 수립 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모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운영되며 금산축
제관광재단에 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10월 4일 진행되는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진행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10월 17일 최종결과를 발
표하고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컨설팅을 지원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 협의체
를 구성하고 관광사업을 발굴, 기획, 운영, 관
리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에 나선다”며 “금산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축제관광재단
DMO사업단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제공

선사인랜드에서 ‘낭만가득’ 추억여행

연휴 맛이 ‘참여형 거리공연’
응답하라 1950’s 추억의 게임

[논산] 논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진호)이 개천절·한글날 연휴를 맞아 10월 1일부터 3일과, 8일부터 10일까지 2주간 선사인랜드 1950스튜디오에서 방문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거리공연을 개최한다.

논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1950스튜디오에서의 거리공연은 단순 관람의 형태를 벗어난 참여형 공연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과거로의 추억여행을 주제 삼아 다양한 볼 거리, 즐길 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응답하라 1950’s〉는 배우들과 추억의 게임

을 진행하며 미션을 완료했을 시 보상이 주어지는 관객참여형 공연으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메인 공연에는 ▲마술극단 다채 신마당놀이 조선마술패(1일, 토요일) ▲매직제이 마술공연(2일 일요일) ▲백백이 클라운 마임공연(3일, 월요일) ▲해피존ENT 익스트림벌룬쇼(8일, 토요일) ▲남달리 음악당 재즈공연(9일, 일요일) ▲저글링하는 광대 전현규 공연(10일, 월요일) 등이 이어지며 찾는 이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한다.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풍성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950스튜디오 거리공연 프로그램 포스터

더 좋은 공연과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 어가겠다”고 말했다.

/논산시 제공



가을처럼 무르익은 알밤 줍는 어린이들

[공주]충남 공주 의당면 밤 체험 농장에서 가을 나들이를 나온 어린이들이 떨어진 알밤을 주워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애장처럼 남아 있는 세교역 옛 자리

■윤성희의 만감(萬感)

시인 이심훈을 ‘장항선의 시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2013년에 이미 ‘장항선’이라는 시집을 냈고 작년에는 ‘노림과 기다림’이라는 꾸밈말을 얹어 ‘장항선 인문학 기행’을 펴냈다. 장항선에는 크고 작은 역마다 절절한 애환과 추억이 실려 있을 것이다. 시인은 그것을 시의 언어로 포착해냈고 거기에 정서적 깊이를 부여했다.

장항선은 천안역-온양온천역 구간을 시작으로 하여 충남선이라는 이름으로 1922년에 부분 개통되었다. 장항선 1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은 확장되었고 어떤 역은 이전되었으며 어떤 역은 이름을 바꿨다. 또 어떤 역은 역사(驛舍)만 덩그러니 남아서 풍상 앞에 놓인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장항선의 간이역이었던 세교역은 또 다른 풍경으로 남아 있다. 1967년 영업을 시작해서 1974년에 문을 닫았으니 막내로 태어나서 일



세교역 옛 자리.

곱 살에 죽은 장항선의 아픈 손가락이다. 직선화된 1.5km 너머에 아산역으로 이름을 바꿔 앓히고 세교역 그 자리에는 애장을 치러주듯 폐선을 남겨두었다. 100미터 남짓의 옛 철길과 몇몇 조형물, 노거수 두어 그루가 실물 흔적을 상기시킨다.

시인은 과거의 시간 속에 박제되어 있는 세교역을 불러낸다.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틈바구니/오목눈이 동지처럼 우묵하기만 한/간이역 하나쯤 누구 가슴에나 있지”(‘세교

역’ 일부). 시인의 표현대로, 세교역은 ‘오목눈이 동지’처럼 움푹 들어간 위치에서 세월을 피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교역 옛 철길은 세상의 궤도에서 분리된 채 오늘의 속도를 뒤에서 천천히 바라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 자신도 한때는 빠름의 상징이었다. 영국에서 처음 열차가 운행되었을 때 시속 35마일(시속 56km)의 속도는 사람들을 경이와 전율 속으로 몰아넣었다. 시인 하이네가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고 선언할 만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흔들렸고 인간의 경험이 바뀌게 되었다.

촉지법을 쓰는 것으로 여겨지던 저 옛날 열차의 빠르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거의 기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속도다. 그러나 나는 오늘 세교역 옛 자리 장재를 공원에 앉아서, 속도에 강박되지 않은 게으른 열차 하나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마음속 풍경 하나를 수확한다.

/윤성희(문학평론가)

민간인 학살 다룬 영화 ‘태안’ 6일 개봉

구자환 감독의 세 번째 작품
전국 독립영화관서 상영

[태안]한국전쟁 당시 충남 태안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영화 <태안>이 드디어 전국 상영관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게 될 전망이다.

구자환(54) 감독의 세 번째 작품으로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기록들을 태안유족회 강희권 상임이사와 세월호 ‘유민 아빠’로 알려진 김영오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학살의 기록을 따라 태안지역이 주요 학살지역에서 남은 유족 30여 명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 장편영화다.

영화<태안>은 1950년 7월 보도연맹 사건과 이후 발생한 인민군 점령기 적대세력사건, 그리고1950년 10월 초부터 1951년 1.4 후퇴 직전까지 일어난 경찰과 치안대 민간인 학살이 있던 때를 시기적 범위로 삼고 있다.

특히 극단적 좌·우 대립 속에 목숨을 잃은 충남 태안지역에서의 참상을 담았다.

영화 <태안>은 주로 지역별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상영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봉일인 10월 6일부터 16일까지는 10개 도시 등에서 상영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태안신문 제공

‘흥’으로 시작해 ‘흥’으로 마치다

고유의 ‘흥’ 정서 제대로 알려

[천안] ‘천안흥타령춤축제2022’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그야말로 흥이 넘치는 무대였다. 현대적 선율을 입힌 ‘천안삼거리’에 맞춰 모든 참가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광경은 절로 흥이 나게 한다.

우리말을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옮길 때 적절한 낱말을 찾기 어려운, 우리만의 정서가 스민 낱말이 몇 개 있다. ‘흥’은 그 중 하나다.

흥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뜻을 잘 안다. 그러나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대

략 난감이다. 이렇게 볼 때 ‘천안흥타령춤축제’는 한국인 고유의 ‘흥’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렸다고 본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 지난 3년간은 그다지 흥겹지 못했다. 흥타령춤제도 불가피하게 멈춰서야 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축제는 더욱 흥겨웠다. 더구나 국제춤대회, 전국춤경연대회 등 대회 프로그램에 참가한 팀들의 실력은 그야말로 수준급이었다.

이렇게 문화는 생소하기만 한 세계를 우리 삶 속으로 끌어 오는 힘이 있다. 세계인들이 방탄소년단(BTS)과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됐듯 말이다.

/천안신문 제공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 축하 ‘불꽃축제’

출렁다리 앞 특설무대에서

[예산]예산군은 예당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 축하 기념 예당호 불꽃축제를 오는 10월 8일 오후 7시부터 예당호 출렁다리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예당호 불꽃축제는 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 출렁다리에서 펼쳐지는 생동감 넘치는 행사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 테마형 야간 경관 조명을 갖춘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식과 연계해 펼쳐질 예정으

로 지역민들과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 중 1부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식행사인 모노레일 개통식과 각계 각층의 군민을 대표하는 24명의 탑승객들의 시승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축하 공연에서는 국내 최고의 록 밴드 ‘부활’과 박완규가 강렬한 비트의 사운드를 선사하며, 예산 출신 가슴기 보이소 트롯 가수 ‘신성’과 뮤지컬 갈라쇼, 퓨전 국악 그룹 ‘풍류’의 공연이 펼쳐져 한층 더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할 전망이다.

/예산군 제공

이응노의 집에서 영화 한 편 어때?

찾아가는 마실극장 개최

[홍성]홍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건환)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주민들을 위해 ‘2022 찾아가는 마실극장’을 이응노의 집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자녀가 있는 가족, 그리고 야외에서 영화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10월 14일 18시 30분부터 홍성군 이응노의

집 뜰에서 열리며, 아이들을 위한 보물찾기 이벤트와 다양한 경품도 마련됐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10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홍성군청, 홍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등) 가능하며, 선착순 140명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단, 선착순 예약자 중 불참자 발생 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041-634-8714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제공



부정성 편향 : 나쁜 기억이 힘이 센 이유

내포칼럼



전우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기억이 가진 힘의 크기 달라

나쁜 기억에 주목하도록 진화 생존과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나쁜 기억에 휘둘려선 안 돼

좋은 기억 보듬어야 행복해져 새로움과 마주할 용기로 성장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모든 기억이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억이 가진 힘의 크기는 모두 다르다. 어떤 기억들은 존재감이 없지만, 어떤 기억들은 힘이 세다.

힘센 기억들 중 하나는 첫 번째 기억이다. 사람들은 첫 번째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기가 처음으로 엎마, 아빠라고 말하기 시작한 순간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한 기억까지.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첫 기억을 토대로 한다. 그리고 첫 번째 기억은 이후에 들어오는 새로운 기억들을 각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첫 기억이 좋으면, 이후의 기억들은 환하게 각색되고, 첫 기억이 나쁘면 이후의 기억들도 어둡게 변한다.

마지막 기억도 힘이 세다. 상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상대에 대한 최신 기억이다. 가장 따끈따끈하다. 가장 최근에 배달되었기 때문에 기억의 창고에서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놓여있다. 그래서 마지막 기억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억이기도 하다.

기억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바로 나쁜 기억이다. 첫 번째 기억과 마지막 기억의 힘은 시간의 순서에서 나온다.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기억인지, 아니면 가장 최신의 기억인지에 따라 기억이 우리에게 발휘하는 힘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쁜 기억의 힘은 그 내용에서 나온다.

만약 우리가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상에 대한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평가한다면, 대상에 대한 최종 평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들의 단순 평균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이 하나씩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중간 정도여야 한다. -3만큼 나쁜 기억과 +3만큼 좋은 기억이 있다면, 최종 평가는 0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실

제 최종 평가는 0이 아니라, -1 또는 -2가 되기도 한다. 나에게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을 하나씩 안겨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판단 경향을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라고 한다.

사람들은 나쁜 기억에 주목하도록 진화했다. 나쁜 기억이 우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쁜 기억은 위험에 대한 정보이다. 뜨거운 물에 손이 데였던 나쁜 기억을 잊지 않고 있어야, 뜨거운 물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미래에 다시 손을 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주었던 상처를 잊지 말아야 다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나쁜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하지만 문제는 진화의 과정에서 나쁜 기억의 힘이 과도하게 세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무리 좋은 기억이 많은 관계도 사소한 몇 개의 나쁜 기억 때문에 휘청거릴 수 있는 것이다.

부정성 편향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아프게 한 상대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나쁜 기억의 분노가 폭발해서 좋은 기억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숨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매우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결과, 시간이 흘러 분노가 조금 사그라지고, 숨죽이고 있던 좋은 기억들이 그 모습을 조금 드러내면 자신의 결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쁜 기억에 휘둘린 의사결정은 후회를 동반한다.

인생은 나쁜 것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기억을 보듬고 가야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 좋은 기억은 우리에게 새로움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우리는 새로움에 다가갈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기억은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고, 좋은 기억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다.

주중에 밀린 잠, 주말에 몰아서 자나요?

I 공공의료원 칼럼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2021년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전 세계 13개국,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제 수면 조사 (Philips Global Sleep Survey, 2021)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은 평균적으로 평일 6.9시간, 주말 7.7시간의 수면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수면 시간은 평일 6.7시간, 주말 7.4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한국인의 짧은 수면 시간은 타 국가 대비 긴 노동시간을 포함한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인에게 적절한 수면시간은 일 평균 7-8시간이라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한국인은 특히 평일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탓에 주말 수면시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갖는

편으로, 학계에서는 이를 ‘주말 몰아자기(Weekend Catch up Sleep)’라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지칭합니다.

‘주말 몰아자기’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중 이번 에 흥미롭게 살펴볼 연구는 ‘주말 몰아자기’와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개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총 5가지 항목을 통해 개인의 질병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에 참여한 총 487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중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집단에서, ‘주말 몰아자기’를 할 때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적절한 수면 시간(7-8시간) 또는 그 이상을 갖는 경우, ‘주말 몰아자기’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상승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과도한 ‘주말 몰아자기’는 도리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중에 적정한 수면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주말 몰아자기’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쁜 한주로 인해, 수면시간이 짧았던 분들은 이번 주말, 적절한 ‘주말 몰아자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어떨까요?



김호준
충성의료원 가정의학과 과장

‘동서트레일’ 제대로 만들자

생생현장리포트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

산림청 지난 6월 29일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 휴양림 소나무 숲이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동서트레일’의 시작이자 종점이 될 전망이다.

서쪽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동쪽 경북 울진까지 동서로 849km에 달하는 ‘동서트레일’은 서쪽에 있는 태안 안면도와 동쪽 울진 금강소나무의 만남이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로 서쪽의 안면도 소나무, 동쪽의 금강소나무, 중간의 보은 속리산 소나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순례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 ‘동서트레일’은 7개 시·군 17개 구간(2개 지선 별도)으로 기존 서해랑길과 내포문화숲길 등 산림적·역사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숲길 구간이 포함된다.

또 서해랑길, 아라메길, 내포문화숲길, 고마나루길 등 충남에 기 조성된 걷기 길이 ‘동서트레일’과 중첩되는 구간은 115km로 분석되었고, 동서트레일 반경 4km 내 연계 가능한 문화관광자원은 102개가 분포되어 있다.

‘동서트레일’ 충남 구간은 태안군 74.4km, 서산시 38.1km, 당진시 19.1km,

홍성군 50.3km, 예산군 16.9km, 청양군 19.4km, 공주시 42.3km 등으로 태안군이 제일 긴 구간이다.

태안 안면도가 시작이자 종점으로 서산~홍성~예산을 잇는 동서트레일 8구간은 서산마애삼존불상, 남연군묘 등 내포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이 어우러진 노선으로, 내포문화숲길 중 버그내순례길, 서산해미천주교순례길 등 천주교 순례길과 연계가 가능하다.

또 동서트레일 16구간은 백제의 고도인 공주 중심부의 유구천과 금강을 잇는 수변경관이 우수한 노선으로, 고마나루, 한옥마을, 공주박물관, 공산성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가 우수한 구간이다.

동서트레일 849km 중 국유림이 123km(15%), 공·사유림이 726km(85%)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수적임에 따라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와 지난 9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구간에 대한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

한국판 ‘산티아고순례길’로 조성될 ‘동서트레일’은 서쪽 축인 태안군 안면도휴양림부터 충남의 각 시·군에 걸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충남지역 구간의 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의 다변화는 물론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의 숨은 관광지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충남도와 각 시·군들이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독고선생님과 해홍이의 유럽 여행

소중에 문학관의 책들(9)



소중애 동화작가

혼자 떠난 배낭 여행이 자랑스러운 만큼 유럽 여행 이야기는 해도 해도 질리지 않고 이야기 거리가 많다.

영국 사람들은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들처럼 묵직하고 호들갑스럽지 않게 친절하다. 길을 물으며 진지하게 알려주고 모르면 매우 미안해 했다. 그러니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다 돌아볼 수가 있었다. 마담 투소 밀랍인형관에 갔다. 실물 크기에 얼굴도 실물과 똑 같은 각국 수장들의 밀랍인형은 그저 놀라기만 했다, 경비원도 밀랍인형인가 확인하려고 만져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비원은 미소로 실물임을 말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소녀 환자 가슴이 벌컥벌컥 뛰고 그 주위에 둘러선 의사와 부모의 밀랍인형들의 심각한 표정은 너무나 리얼했다.

잠있게 구경하는데 코피가 터졌다. 무리한 여행 일정 탓이었다. 휴지로 코를 막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코피 터진 아시아 여자 밀랍인형인줄 알고 자꾸만 만지는 바람에 그만 일어나고 말았다. 다시 생

각해도 즐겁고 재미있었던 곳이었다. 배낭족들이 야구동성으로 칭찬했던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친절 이야기. 나는 이런 친절까지 받아봤다. 돈 없는 배낭족에겐 유스호스텔이 최고다. 유스호스텔은 설립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싸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예약이 안되고 몇몇 나라만 제외하고는 외곽에 있으며 늦게 가면 잠자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보통 4-6인이 한 방을 쓰지만 20여명이 함께 사용하는 곳도 많다. 거리낌 없이 옷을 빨라당 벗고 갈아있는 신기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곳이다. 나라가 다르니 여러 가지가 다 다르고 신기했다.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도 낯설었다.

나는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와 오트리아 전차를 타고 가면서 유스호스텔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는가 옆 사람에게 물었다. 친절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알려 주는데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전하던 기관사가 거리한복판에 전차를 세우고 나보고 내리라고 했다. 그리고는 코너 꺾인 곳까지 데리고 가 멀리 산 아래를 가리켰다. 그곳에 유스호텔이 있다는 것이었다. 눈물 나게 고마운 일이었다. 그런 분들이 있어 내가 저렴한 영어를 하면서도 혼자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창고에 잠들어 있는 천안시민의 종, 시민과 재회할 날은?

유수희 의원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에 대한 필요성 피력”
시 관계자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진천 성종사에 보관, 훼손 방지 위해 우든박스 포장 상태

[천안] ‘천안시민의 상징’인 천안시민의 종이 현재 천안을 떠나 있는 가운데, 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이 서서히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은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이 발언에서 “천안시민의 종은 시민의 희망과 꿈을 위해,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줬던 지역의 상징이자 자산”이

라며 “보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방지하지 말고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4%의 시민이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를 원한다는 결과를 받아든 천안시는 유 의원의 이날 발언을 기점으로 시민의 종 재설치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김청수 천안시 문화정책팀장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위치인데, 이미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고 대략적으로 시

청 인근으로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이전 설치에 대한 확실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본지는 9월 19일 천안시민의 종이 보관돼 있는 충북 진천의 성종사를 찾았다. 1954년 설립돼 우리나라 최초의 범종 제작업체로서 2005년 천안시민의 종 제작뿐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 설치된 종과 각종 사찰에 설치된 종, 해외 수출까지 다양한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였다.
매년 천안시로부터 약 420여 만원의 보관료를 받고 있는 성종사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한 곳에 시민의 종을 보관하고 있었다. 종과 함께 종각 등 부속 설치물들도 따로 보관돼 있다고 성종사 관계자는 전했다.



천안시민의 종 설치 당시 모습

이번 문제를 다시금 수면위로 꺼낸 유수희 의원은 “앞으로 있을 시정질의 때도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담당 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눠본 후 이들도

많은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느꼈다. 함께 고민해 보고 천안시민의 종이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제공

‘보령 어디가 좋았니?’ 사진 공모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보령]충남 보령시가 '2022 보령 방문의 해'를 맞아 보령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을 통해 보령의 매력을 알리고자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28일까지 개최하며, 보령시를 사랑하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연·문화재 등의 문화관광 부문, 전통시장·생생현장 등의 생활환경 부문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인 1부문 1장만 제출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작품 접수는 2022년에 보령을 직접 촬영한 사진 파일과 참가신청서, 서약

서 등을 보령시 블로그에서 내려받아 이메일(plan201028@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1점 100만원), 최우수상(2점 각 50만원), 우수상(4점 각 30만원), 장려(4점 각 20만원) 등 총 11점을 선정해 오는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보령시 제공

추사의 고향에서 열리는 강연회

[예산]예산군 추사고택은 10월 7일 오후 1시부터 군청 추사홀에서 ‘추사의 예산, 예산의 추사’라는 주제로 정민 등 추사학의 권위자 4인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강연회는 추사가념관 특별전의 연계행사로 총 4개의 소주제를 통해 추사 김정희(1786-1856)에 대한 인물 탐구와 업적 및 그가 교유했던 인물, 예산과 김정희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강연회는 정민(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유순영(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회) 위원, 김영진(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교수, 박철상(한국문화문화연구소)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추사고택 관계자는 “추사 김정희의 고향인 예산에서 열리는 첫 번째 학술강연회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며 “군민들이 추사 김정희를 통한 재미있는 인문학 강연을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강연회는 예산군 유튜브(YouTube) 공식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예산군 제공



작가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선도리당섬의 황혼 **[서천]**바닷가 외로운 바위섬에 한그루의 소나무가 짝을 이루어 묘한 매력을 자아내는 선도리당섬은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앵글에 담을 수 있는 최적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선도리당섬을 찾아 서해안의 황혼을 만끽하며 삶의 여유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서천신문 제공

‘태안반도의 식물’, 개정판 출간

숨겨진 1155종류의 식물들

[태안]“일천 삼백리 해안선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태안반도의 자연에 숨겨진 1155종류의 보석 같은 식물 친구들을 이제 곧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약 8년간 태안반도 구석구석을 탐사하며 확인했던 총 864종류를 선별하여 1350여장의 사진과 함께 2014년 출간된 ‘태안반도의 식물’은 최기학 전 태안중 교장 등 5명의 식물 전문가들의 손길이 모여져 개정증보판에는 총 1155종류(Taxa)의 태안반도 식물들이 담겼다.

한반도에서 저절로 자라는 식물(자생식물/귀화식물)이 국가표준 식물 목록(2022) 기준으로 총 4270종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증보판은 태안반도에서 볼 수 있는 식물 1155종류라는 숫자는 한반도 전체식물상의 약 27%에 달할 정도로 좁은 면적에 위대한 식물종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바닷가 사구 및 염생식물을 비롯하여 갈퀴지치, 회색사초, 뿌리대사초, 검정방동사니 등의 희귀한 식물서식지의 새로운 확인도 큰 성과를 담고 있다.
/태안신문 제공



사서들의 서재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최원형/블랙피쉬/2021〉

지구를 지키기 위한 매일 매일의 작은 실천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은 환경생태 분야에서 다양한 책을 내며 활동 중인 작가 최원형이 새롭게 낸 환경 인문학 책이다. 저자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EBS, KBS에서 방송작가 생활을 했으며,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등 10여 권이 넘는 환경 관련 도서를 출간하며 지구와 생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은 달력에 표시된 세계의 환경 관련

51가지 기념일을 모아 그 탄생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책이다. 기념일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의 4계절로 분류해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
주 독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성인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환경 위기의 원인과 현황, 국가 또는 단체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더불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실천해 볼 만하다.
다만 청소년이 주요 독자층이기 때문에 ‘~했어요’, ‘~일까요?’ 등의 구어체를 사용해 성인 독자라면 몰입에 다소 방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내용을 부담 없이 더욱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 등장하는 ‘지구의 날(4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

등 어디선가 들어봤던 익숙한 날들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가며 지구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다져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사자의 날(8월 10일)’, ‘세계 화장실의 날(11월 19일)’과 같이 생소한 날들을 살펴봄에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해 왔던 생명의 존엄과 존중에 대해 깨닫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소개된 51가지의 기념일을 달력에 추가해 오늘부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엄은진

연아 씨의 장밋빛 인생...희망의 꽃 피워

19살에 베트남서 당진으로...19년째 당진살이
6년 전 장미 농사 시작...폭우로 수해 입기도
“자신과 가족에게 당당하다면 행복한 삶”

[당진]남연아(38·송악읍 석포리) 대표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다. 처음 온 당진은 매우 낯선 곳이었지만 19년이 지난 지금은 구수한 사투리를 사용할 정도로 지역에 정착했다. 현재 그는 송악읍에서 6년째 장미 농사를 지으며 희망의 꽃을 틔우고 있다.

“사투리 못 알아들었죠” 남연아 대표는 19살의 나이에 베트남에서 당진에 왔다. 그에게 당진은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른 미지의 세계였다. 열대국가에서 자란 남 대표는 한국의 겨울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지난 2003년 9월 당진에 온 남 대표는 “낙엽이 들고 단풍 지는 게 신기했다”며 “한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라고 말했다.

결혼 전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배웠지만 글을 읽을 줄만 알고 의미를 알지는 못했다. 게다가 사투리를 사용해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남 대표는 “표준어로 언어를 배웠는데 시택에서는 가위를 ‘가세’, 양파를 ‘다마내기’라고 쓰니 신혼 초반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19년간 살면서 이제는 당진 사람이 다 됐다. 남 대표는 시부모님의 사투리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 어르신들을 만날 때면 자연스레 사투리가 나올 정도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은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란다. 그는 “이젠 시택에 가면 ‘저 왔수~’하면서 인사드린다”며 “어디 가서도 시어머니 손맛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6년째 송악읍 석포리에서 1200



연아장미 남연아 대표(송악읍 석포리)

평 규모로 장미 농사를 짓고 있다.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난 태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에게 현재의 농원 자리를 소개받았다. 남 대표는 “장미 농사를 짓기 전에는 제약회사에서 1년간 일했다”라며 “열심히 하면 먹고 살만 하다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꽃 농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농원은 자신의 이름을 따 ‘연아장미’라고 이름 지었다. 장미꽃을 제 새끼라

생각하며 지은 첫 농사는 잘 됐지만 2년째에는 꽃을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했다.

남 대표는 포기할 생각할 만큼 낙담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는 농원, 꽃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남 대표는 “한 농원 대표가 ‘다른 농장에 많이 가보고, 자신만의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너의 시대를 만들라’고 한 조언이 나를 일깨웠다”고 말했다. 심기일전한 남 대표는 농원 상태에 맞춰 그날그날

기온과 습도를 달리 맞추며 세심하게 관리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했고, 강소농 육성사업에 선발돼 교육과 컨설팅, 기술지원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아직 장미 농사로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성공한 삶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아들딸은 ‘우리 엄마 베트남에서 왔다’고 당당히 얘기해요. 우리 엄마 한국 문화 익히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장미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 했다고... 아이들한테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저는 성공한 삶 아닐까요?”

다문화도 우리 사회 구성원

남 대표는 자신과 같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좋아하는 일,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진시대 제공



최강 소방관은 누구? [공주]9월 27일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여성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끌며 30m 달리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친일파 기념물, 친일행적 안내판 설치

윤봉길의 고장, 역사 바로 세워

[예산]예산군이 발 빠르게 ‘친일파 기념물’ 정비에 나섰다. 매년 윤봉길 의사의 고장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들의 행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한 것.

대상은 ‘백성을 자애롭게 여기고, 청렴하고, 고결하여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대흥군에 각별한 선정을 베풀었다’는 해설이 달린 ▲정낙용 상공 영세불망비(군청앞 비석군) ▲정주영 관찰사 청덕선정비(군청앞 비석군)·상서 유해기념비(대흥의종은형제공원 비석거리) ▲이건하 관찰사 영세불망비·순상 거사비(대흥의종은형제공원 비석거리)다.

군에 따르면 <무한정보>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소년상 건너편 친일파 기념물’을 보도한 뒤,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독립운동사·조선시대전문가 현장자문을 받아 친일행적을 기록해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필요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군비로 확보했다.

세 사람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물사전에 이름을 올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다.

이건하는 대한제국기 중추원 찬의와 충남도관찰사 등을 지낸 경기도 광주 출신이다. 1910년 한일합병(경술국치) 공로 남작 작위, 1911년 은사공채 2만5000원,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 등 종4위에 서위했다.

정낙용은 일제가 1910년 남작 작위, 1911년 은사공채 2만5000원,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하사한 인물이다. 장남인 정주영은 작위를 승계해 1915년 조선총독부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연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특별회원으로 참여해 기부했다. ‘다이쇼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도 받았다.

1900년 8월 정주영과 대술 시산리로 내려와 어린 시절을 보낸 딸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김구 선생이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칭한, ‘임시정부의 어머니’ 수당 정정화다. /무한정보신문 제공



대흥의종은형제공원 비석 거리에 있는 이건하 거사비

장구에 4/4박자 리듬 더하면, 세상 모든 근심 사라져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
군살 쪽 다이어트 효과도

[계룡] ‘아랑고고장구’는 우리나라 전통 4/4박자 리듬에 맞춰 장구를 치면서 창작이 더해진 군무를 펼치는 무용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다. 흥이 나는 것은 각설이와 비슷해도 춤사위와 품격은 전혀 다르다.

(사)한국고고장구진흥원의 조승현 대표가 전통적인 장구 가락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장구 타법으로 ‘아랑’은 조 대표의 호이고, ‘고고(GO! GO!)’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명희 원장은 1962년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났다. 호랑이띠로 올해 환갑이다. 적은 나이도 아닌 그녀가 30여년을 근무한 국군인쇄장을 명퇴하고 얼마면 얼마시에 (사)한국고고장구진흥원 계룡지부를 맡으며 아랑고고장구



아랑고고장구 이명희 원장

보급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 원장은 10여 년간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3년 전 아랑고고장구를 접했다.

이 원장은 아랑고고장구를 처음 접했을 때를 회상하며 “신나게 장구를

두드리면서 안무까지 즐기다 보면, 무엇보다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우울했던 기분까지 모두 사라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장구에 빠진 이명희 원장은 1년의 아랑고고장구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정든 직장까지 명퇴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해 봄부터 회원이 되었다는 이 원장의 A 문하생은 “다른 운동을 했을 때보다 운동량이 훨씬 많은지 군살이 쏙 빠졌다”며, “일명 ‘몸타’라 불릴 정도로 온몸을 사용하는 장구 타법에 흥겨운 리듬까지 곁들이면서 저절로 다이어트 효과를 갖고 오는 것 같다”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시작한 친구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다이어트 효과까지 보았다. 힘들었던 갱년기를 장구를 치면서 넘겨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며 환하게 웃는다.

/놀외신문 제공

“사회적 위험의 시기, 이주민에 대한 배제와 혐오 줄여 가야”

I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양극화, 경기침체, 감염병 등 우리 사회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하루를 힘들게 살아내는 사람 수가 늘고 불안과 공포, 좌절과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가 퍼지기 쉽다. 이주민을 배제하고 혐오하기 좋은 때다.

최근 발표되는 외국인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제인식, 혐오 정서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주민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일삼아 소중한 일상을 위협

한다고 쉽게 믿어 버리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시기에 혐오가 향하기 쉬운 곳이 이주민 집단이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도 이를 알고 있다. 통합과 관용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배제와 혐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부 정책은 과연 전 세계적, 전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이주민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족으로, 이웃으로, 친구로, 동

료로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가족으로 연결되어 마을에서, 학교에서, 직장 등에서 일상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 눈에 이주민은 낯설고, 때로 두렵기도 한 이방인일 수 있다. 한 개인으로, 인생으로 만나 삶을 마주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동하기 쉽다.

우리 사회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선택하였다. 사회적 위험의 시기를 맞아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 뉴스는 걸러내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다.

/우북남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340회 임시회 폐회...행정사무감사계획 등 84건 처리

추가경정예산안 75억 4657만 원 삭감

5분발언, 긴급현안질문 등 정책제안 활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8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긴급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와 감시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5분발언은 19명의 의원이 발언을 진행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안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75억 4657만 원이 삭감됐다.

조길연 의장(부여)은 “이번 회기에 인삼약초 산업 활성화 특위 등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청년정책,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7일부터 올 한해를 정리하는 정례회로 열린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3년 본예산 등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행 모습.

도정·교육행정 및 긴급현안질문

홍대받는 농촌교육실태 강한 질타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제3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10년째 지지부진한 청양초 방과후교육지원센터 건립지원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양초와 대치초가 통합기금으로 방과후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청양초 일원 부지를 매입했지만, 방치만 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스마트 디지털 교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충남 권역별 발전계획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와 대책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세종소재)의 속한 도내 이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구소멸지역인 공주, 부여, 청양에 특단의 정책을 발굴 적용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유지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충남도립대에 디지털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 배출을 위한 자격증 과정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도립대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림자원연구소를 조속히 도내로 이전해 도민 경제 소득향상과 도민 산림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쌀값·농업경영 안정화 선제 대응 강조



김민수 의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도정운영의 방향과 농업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촌에서 농업경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농촌인력 문제다. 각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외국인 인력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관리팀을 신설해 시군에 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태훈 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며 현재 시군에 필요한 인력을 조사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력팀 신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농어민수당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청년농을 승계농과 취·창업농으로 구분한 맞춤형 지원 ▲도와 교육청의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비율 조정 등에 대해 질문하고 개선사항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유리천장’ 여전”



김국수 의원

충남도의회 김국수 의원(서산1)은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현실과 충남도의 인사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도내 공무원의 남녀 성비는 9급에서 7급의 경우 균형을 이루는 반면, 4급 여성공무원의 경우 전체 170명 중 9명, 3급 여성공무원은 20명 중 1명으로 2017년부터 변함이 없다.

특히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4.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부터 유리천장을 깨트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주소를 보면 충남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균형 인사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의 여성 리더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정책에 앞장서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 쌀값 폭락 선제적 대응해야”



방한일 의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20kg당 5만 6000원이었던 쌀값이 최근 4만 원대로 떨어지며 45년 만에 가장 크게 폭락했다.

쌀 재고량 또한 역대 최고인 41만 톤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매입했지만 재고량은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다.

방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필수 농자재 비용이 폭등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쌀 소비 또한 급격히 줄어 농민들은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조치를 지적하고 ▲쌀 자동시장거래 의무화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정적가격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비 50% 등을 제안했다.

이어 “충남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출범 후 정책 추진 송곳 질의



안재현 의원

충남도의회 안재현 의원(아산5)은 제34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의 경우 내년부터 도민이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또 “충남도·아산·천안 셔틀전동열차 도입 등 도민의 염원이 담긴 정책이 도정에 녹아있어야 한다”며 “특히 셔틀전동열차 도입과 같은 민선 7기의 정책이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조 원이라는 국비 확보를 공약했지만,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30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도, 태풍급 경제위기 대안 마련해야”



안종혁 의원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은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슈퍼태풍급 경제 위기 긴급 대책’을 주제로 전형식 정무부지사에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현재 농산물의 비료, 어선의 연료, 기업의 제조회가, 인건비,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이르기까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위기는 ‘그레이트스완’이라 불리는데 이 말은 이미 알려진 약재이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위험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제적인 상황을 말한다. 슈퍼태풍은 온다는데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제적 위기는 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금의 긴급수출 뿐 아니라 다른 중장기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항시 모니터링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경제위기 극복시까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제안했다.

내포 축산악취·과밀학급 해소 촉구



이상근 의원

제340회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은 내포신도시의 축산악취 문제 및 학급과밀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 10만을 목표로 했던 내포신도시 인구는 고작 2만 9000명에 불과한데 원인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이에 김태훈 지사는 “계획대로 인구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 계획한 정주여건 취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만약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 산단으로 조성하길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축산악취 해결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사조농산 이전보상과 관련한 홍성군의 제안(도 50억, 군 50억)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간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신입생이 증가해 과밀학급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데, 내포·덕산 단일공동학구를 펼치려는 현재 교육행정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장 전문성 고려해 임명해야”



홍성현 의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및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동안 무리없이 도정을 이끌기 위해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잔여 임기를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공공기관장이 60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10번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이라는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충남도 사업 중 폐지나 축소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면밀히 점검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김복만 의원

충남도의회는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복만 의원(금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위는 인삼약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함은 물론 인삼브랜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금산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 및 관광산업과 연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일자리 창출 위한 특별위”

제34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현 의원(아산5)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미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 콘텐츠, 해양바이오 등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산업별 육성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충남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내 산업별 육성방안을 모색해 충남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 관련 기관 이전 특별위’ 구성



윤기형 의원

충남도의회는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논산1)이 대표 발의한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충남은 역사적으로 호국정신이 뚜렷한 지역으로, 특히 논산시에는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이 있어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국방연구원 등의 기관을 충남 남부권에 이전·유치해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내포신도시 완성 위한 특위 구성

제34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2006년 내포신도시로의 충남도청 이전이 결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올해 7월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9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수용목표(10만 명)의 30% 수준으로, 정주여건 부족, 축산악취, 과밀하급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상근 의원은 “미완성의 내포신도시를 완성으로 이끌어 충남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다”며 “내포신도시 완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특별위’ 구성



지민규 의원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에는 지민규 의원을 비롯해, 구형서·김도훈·박정식·방한일·신순옥·신영호·안종혁·윤희신·이용국·정병인 의원 등 11명이 참여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청년 관련 특별위원회인 만큼 20·30·40세대 구성 비율이 70%를 넘어선다.

활용내용은 ▲청년 협력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 ▲청년정책 연구 및 사업 ▲청년활동 지원방안 마련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조례 제(개정) 등이다.

“도약 위한 단합과 소통” 화합한마당 개최

도의원 48명 및 사무처 직원 132명 참여
교육청 다목적실서 단체경기 및 장기자랑

충남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및 제340회 임시회 마무리를 계기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9월 28일 제34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뒤 충남교육청 다목적실에서 도의원 48명과 사무처 직원 132명이 참여해 단체경기 및 장기자랑 등 ‘2022년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화합한마당에는 김태홍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행사는 단체의 화합이 중요한 족구,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 팀별 단체경기를 통해 실력



충남도의회 직원들이 ‘2022년 화합한마당’에서 단체줄넘기를 하고 있다.

을 겨루고, 참여자 전원이 1개 이상의 종목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응급의료 및 안전 관리에 철저히 대비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제12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첫 단추는 잘 끼워졌지만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고 격려했다.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천안아산 R&D지구 활성화 방안 제안



구형서 의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은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의 성공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R&D 집적지구는 천안·아산 지역에 약 20만 평 규모로 건설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향후 충남도 4차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구 의원은 “현재 R&D 집적지구 입주자나 방문자가 이용할 천안아산KTX역과의 이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는 두 지점 간 철도 고가 하부를 이용한 도보통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힘센 충남’ 청산주의 넘어서야”



김선태 의원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이 제340회 임시회 제4차 5분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청산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중앙정부, 지자체 등 어떤 상대와도 협의 없는 김태홍 도지사의 삼교역 신설 국비 전환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위해 8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 민선 7기 신설된 출산·다자녀 공무원 가산점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포신도시 구역 확대 하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제34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 지정구역을 삼교역, 덕산면 소재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8년 인구 10만 추세를 고려하면, 2029년 이후에는 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이 부족할 것”이라며 부작용으로 내포신도시 인근의 난개발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포신도시 확대 검토 및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시행 ▲주민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방 의원은 충남도에 내포신도시를 확대할 경우 예산군과 홍성군의 5:5 균형 발전과 덕산면 소재지와 삼교역사 주변까지 확대 연계한 검토를 요구했다.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 촉구



신순옥 의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포에 따른 재확산 피해가 매우 크다”며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과 지자체의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잊혀질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충남도에서도 기본적인 상담과 보호 및 영상물의 모니터링과 삭제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자해·자살예방 원스톱 시스템 제안



유성재 의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은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책임과 협조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가족 갈등, 성적비판, 우울증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추락한 교원 회복 및 고위험군 학생의 소신 있는 지도를 위해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급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신속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해·자살예방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 제안



이연희 의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은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한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에 맞는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수급에서 중복과 누락이 여전하고, 선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복지 행정의 민낯”이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통합돌봄 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대책 촉구



이현숙 의원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정적 주거 공간, 맞춤형 복지 정책, 자립 정착금 확대, 맞춤형 마음 건강 증진 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립정착금 800만 원은 거주 공간 마련과 자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홀로서기 하는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청년 세아하우스 운영 도입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복지 및 청년정책 통합 연계 ▲자립지원금 확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방치된 대천항 종합 대책 마련 촉구



최광희 의원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은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천항 재개발 구역의 어구수선장 단지 조성과 대천항 항만재개발구역 활성화를 촉구했다.

대천항 ‘항만재개발구역’은 2007년도부터 어구어망의 적치 장소와 임시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관광벨트의 경관 훼손은 물론 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천항을 서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만들고 어업인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업인 전용 어구수선장 단지조성 ▲폐 어구어망 및 법정 초과 그물 수매제도 시행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사계절형 해양관광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K-Military, 평화의 카운트



expo22.kr



2022.10.7(금) ~ 10.23(일)
충청남도 계룡시(계룡대 활주로)

- 메인 공연** | 계룡세계군악의장 콘서트, 로드퍼레이드, 뮤지컬 갈라쇼
- 프로그램**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전투 및 기동시범, 고공강하시범, 육해공군의 날, K-MILITARY 경연대회, 계룡산 안보등반, 계룡대 영내투어
- 체험** | 군무기장비 전시·탑승, 헬기탑승 투어, 병영훈련·서바이벌·사격훈련 체험
- 국제회의** | 계룡세계평화포럼
- 전시관** |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